

小說 觀點에서 본 『國語』의 敘事文學 價値*

諸海星**

目 录

1. 緒言
2. 小說 觀點에서 본 『國語』의 敘事 特徵
 - 1) 史實에 기초한 合理的인 想像과 虛構
 - 2) 誇張 手法을 運用한 重大場面의 描寫
 - 3) 歷史人物의 言行을 통한 性格의 表現
3. 結語

1. 緒言

필자는 일찍이 先秦 시기의 대표적 史傳著作에서 중국 고대소설의 원류를 고찰하는 작업을 통하여 그 敘事 속에 나타난 다양한 소설 성분과 요소를 부분적이거나 조사한 적이 있다. 그 후로는 『左傳』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서사와 인물묘사에 나타난 다양한 소설적 특성을 탐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설의 관점에서 『좌전』의 문체 속성과 서사문학적 가치 및 후세 文言小說과 白話小說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학자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先秦 兩漢 시기의 역사문헌을 ‘歷史散文(史傳散文)’으로 규정하여 그 문학적 가치를 연구하였다.

* 본고는 2015년 11월 臺灣 臺北에서 열린 ‘第4屆 敘事文學與文化 國際學術研討會(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系, 臺灣中央研究院 中國文哲研究所 공동주최)’에서 발표한 「由小說角度看『國語』의 敘事文學價値」(中文論文)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啓明大學校 中國語文學科 教授.

특히 『左傳』, 『國語』, 『戰國策』으로 대표되는 선진 시기의 사전저작은 더욱 그러하다. 국내 중문학계에는 先秦文學 전공학자가 매우 적다. 특히 이 시기의 역사문헌을 문학작품으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학자는 그 수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지속적으로 『좌전』 연구에 穿鑿하는 朴晟鎭(서울여대)과 『국어』 연구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李紀勳(건국대)을 대표학자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국어』에 대한 연구는 필자가 수집하여 확인한 자료에 근거하면 지금까지 국내에 번역서로 完譯 3종¹⁾과 選譯 1종²⁾이 나왔고, 학위논문과 연구논문은 총 9편이 발표되었다. 그중에서 역대 주석본 정리와 판본 국내 소장 현황 및 한국 문인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2편³⁾이고, 『春秋』의 기사 특징과 『좌전』, 『국어』에 대한 영향 및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2편⁴⁾이며, 문장기술 및 후세 문인에 대한 영향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5편⁵⁾이다. 이 중에서 이기훈의 논문만이 중국문학의 역사산문(사전산문) 범주에서 『국어』를 연구한 학술 논문으로 볼 수 있다.

『국어』는 각 나라별로 역사 사실을 언어, 대화, 변론 중심으로 목차를 나누어 기록하였으므로 서명을 ‘國語’라고 하였다. 『좌전』은 春秋時代 위주의 역사 사실을 魯나라 군주의 紀年에 의거하여 魯나라 중심으로 기록한 編年體史書로, 『春秋』를 해석하였기에 ‘春秋內傳’이라고 한다. 반면에 『국어』는 중요

- 1) 許鎬九 등 역주, 『國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05. 林東錫 역주, 『국어』, 서울: 동서문화사, 2009. 신동준 역주, 『좌구명의 국어』, 서울: 학오재, 2009(초판), 서울: 누리미디어, 2015(재판).
- 2) 신지영 이정재 옮김, 『국어』, 서울: 홍익출판사, 1998.
- 3) 이기훈, 「역대 『國語』 주석본 정리 및 분류」, 『中國文學硏究』40輯, 2010. 이기훈, 「『國語』의 국내 소장현황과 한국 문인의 『國語』 활용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30輯, 2012.
- 4) 李洲良, 「『春秋』의記事特徵及其對『左傳』『國語』의影響」, 『中國語文論譯叢刊』35輯, 2014. 조원일, 「『春秋左傳』『國語』의 天人關係 연구」, 『東洋文化硏究』7輯, 2011.
- 5) 이기훈, 「『國語』의 敘述方式 硏究」,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기훈, 「『國語』에 대한 ‘非(비평)’ 論爭過程 고찰」, 『中國文學硏究』37輯, 2008. 이기훈, 「柳宗元 문장과 『國語』의 연원관계에 대한 역대 인식 초탐」, 『中國文學硏究』38輯, 2009. 이기훈, 「柳宗元 문장의 『國語』 수용양상 고찰」, 『中國語文學論集』58號, 2009. 이기훈, 「春秋시기 歷史散文의 文章技術 小考-『國語』를 중심으로」, 『中國散文硏究集刊』5輯, 2015.

역사사건을 각 나라별로 나누어 기록한 역사문헌으로 그 내용이 『춘추』에 의거한 것이 아니기에 ‘春秋外傳’⁶⁾ 또는 ‘左氏外傳’⁷⁾이라고 부른다. 『국어』는 체제 면에서 『좌전』과 다르지만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은 거의 일치한다. 중요 역사인물의 언론과 상호간의 대화 및 반박과 힐난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통하여 春秋列國의 정치, 군사, 외교활동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위로는 周穆王이 西戎(犬戎)을 정벌한 내용(대략 B.C.967)부터 아래로는 戰國時代 초기 韓, 趙, 魏 三家가 智伯을 멸한 사건(B.C.453)까지 약 5백여 년간의 부분적인 역사인물의 언론과 사건을 나누어 기록하였다. 쑤씨는 모두 21권으로, 周, 魯, 齊, 晉, 鄭, 楚, 吳, 越 8개국의 역사 사실을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기록한 역사 사실은 앞뒤가 연결되지 않으며 모두 각각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

『국어』는 ‘記言’ 위주로 되어 있어 ‘記事’가 간략하고 논리가 대체로 까다롭지 않고 쉽다. 그러나 문학적 시각에서 보면 일부 단락의 문장은 그 서사의 처음과 끝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으며, 생동적 비유와 함축된 의미가 풍부한 驚句뿐만 아니라 합리적 허구와 상상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역사인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비교적 세밀한 묘사를 함으로써 이야기거리의 완성성과 인물형상의 생동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국어』는 역사문헌으로서의 사학적 가치를 뛰어넘어 서사문학적 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 이러한 단락의 문장은 단독으로 하나의 단편 문학작품이 될 수 있으며, 그 속에는 어느 정도의 소설 성분과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史傳으로서의 『국어』에 나타난 이러한 소설적 요소는 후대 문학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랜 기간 ‘史貴於文’으로 귀결되는 전통적 가치관과 전통산문을 중시하는 문학 관념의 지배를 받아온 중국학계의 현실은 일부 학자의 연구 성과⁸⁾를 제외하고

6) 班固, 『漢書·律曆志』(第一下), 北京: 中華書局, 1956, 1013쪽. 韋昭注, 『國語·國語解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661쪽.

7) 王充, 『論衡·案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273쪽.

8) 중국학계에서 『國語』의 서사문학적 가치를 인정한 연구 성과는 『左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필자가 수집하고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中國散文史’ 저작을 제외하고는 趙明 主編 『先秦大文學史』(長春: 吉林大學出版社, 1993), 譚家健 著 『先秦散文藝術新探』(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5), 章培恒·駱玉明 主編 『中國文學史·上卷』

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선진 시기의 중요 역사문헌인 동시에 대표 사전저작인 『국어』를 대상으로 역사산문으로서의 문학적 가치를 넘어서서 소설의 관점에서 그 서사의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부분적이거나 탐구하고자 한다.

2. 小說 觀點에서 본 『國語』의 敘事 特徵

지금까지 사학이나 문학의 성취 면에 있어서 『국어』는 『좌전』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통산문이 아닌 소설의 관점에서 보면 『국어』의 서사와 인물묘사는 『좌전』의 그것보다 비교적 분명한 예술적 특색을 띤다. 본고에서는 소설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어』의 서사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역사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상상과 허구, 과장 수법을 응용한 중대장면의 묘사, 역사인물의 언행을 통한 성격의 표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와 관련된 단락의 구체적 예문을 중심으로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1) 史實에 기초한 合理的인 想像과 虛構

『국어』에 기록된 고사는 대부분 간략하지만,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實錄에 가깝다. 그러나 일부 단락에는 합리적 상상과 허구 성분을 함유한 고사도 들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王靖宇 著 『中國早期敘事文論集』(臺北: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籌備處, 1999), 郭丹 著 『先秦兩漢史傳文學史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4) 등이 부분적이거나 『국어』의 서사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다룬 대표적인 논저이다. 이 밖에도 萬平은 『國語』 敘事芻論』(『北方論叢』2000年 6期)에서 서사 작법, 구조 배치, 장면 묘사, 상상 허구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국어』의 서사특징을 논술했다. 근래에 나온 李佳 著 『國語』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는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2009년)을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논저인데, 제7장에서 창의적인 문장구조, 출중한 설리기고, 외유내강하고 의미심장한 해학 풍자 문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先秦歷史散文의 중요저작’으로서의 『국어』의 문학특색을 논술했다.

어있다. 작자는 역사 사실의 바탕에서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해나가고, 그 줄거리 속에 합리적 상상과 허구를 섞으며,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생동감이 넘치게 기록함으로써 창의적인 문장구조를 만든다. 그 언어는 대체로 소박하고 막힘이 없으며, 문장의 풍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晉語五』에 나오는 「晉靈公使鉏麇殺趙宣子(진영공이 서예에게 조선자를 죽이게 하다)」 고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진영공이 포악하여 조선자(조돈)가 자주 간언하였다. 영공이 그를 미워해서 서예를 시켜서 죽이게 하였다. (서예가) 새벽에 가서보니 침문이 열려있었는데, (조선자가) 옷을 갖추어 입고 조회에 가려다가 시간이 일러서 관을 쓴 채 잠들어있었다. 서예가 물러나 (홀로) 탄식하며 “조선자는 공경함을 행하는 사람이다! 무릇 공경함을 잊지 않는 사람은 사직의 중진이다. 국가의 중진을 해치는 것은 불충이요, 명령을 받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신이니, 이(불충이나 불신) 중에 하나의 이름이라도 얻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고서는 정원의 괴목에 머리를 부딪쳐죽었다. 영공이 조돈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조천(진나라 대부)이 영공을 도원에서 공격하여 (시해하고) 공자 흑둔(晉文公의 아들, 襄公의 동생)을 맞이하여 (군주로) 세우니 이가 바로 성공이다.⁹⁾

晉靈公(B.C.620-607 재위)은 무도한 폭군이어서 충성되고 강직한 권신 趙宣子(趙盾)가 여러 차례 간언하였다. 영공이 力士 鉏麇를 보내 조돈을 암살하려하자, 서예가 조돈이 國事に 부지런하고 공경을 잊지 않는 것을 보고서 국가의 동량을 죽일 수가 없어 君命을 어기고 자살하였다. 이 고사에서 서예가 자살하기 전에 내심으로 한 독백은 『左傳·宣公二年』의 기록¹⁰⁾과 마찬가지로

9) 靈公虐，趙宣子驟諫，公患之，使鉏麇賊之，晨往，則寢門辟矣，盛服將朝，早而假寐。麇退，歎而言曰：“趙孟敬哉！夫不忘恭敬，社稷之鎮也。賊國之鎮不忠，受命而廢之不信，享一名於此，不如死。”觸庭之槐而死。靈公將殺趙盾，不克。趙穿攻公於桃園，逆公子黑臀而立之，實爲成公。(『國語·卷十一·晉語五』，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399쪽.)

10) 『左傳·宣公二年』：(靈公)猶不改。宣子驟諫，公患之，使鉏麇賊之。晨往，寢門闢矣。盛服將朝，尙早，坐而假寐。麇退，歎而言曰：“不忘恭敬，民之主也。賊民之主，不忠。棄君之命，不信。有一於此，不如死也。”觸槐而死。

로 당시 타인이 현장에 없어서 다른 사람은 알 방도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 紀昀의 『閱微草堂筆記』(卷11)와 李元度の 『天岳山房文鈔』(卷1) 「鉅覽論」 및 李伯元の 『文明小史』(第25回)에서 각각 의심을 제기하며 역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비난하였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독백에 해당하는 이 단락은 사실 작자의 추측이나 짐작에서 나온 예술적 허구이다.¹¹⁾ 『국어』의 작자는 사건 발전의 논리적 변화에 따라서 허구와 상상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사건의 발전에서 빠지거나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서 써낸다. 문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술적 허구이며, 상상과 가상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후대 소설의 창작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어』에는 또 역사 사실의 바탕위에서 예술적으로 가공을 많이 한 단락을 찾아볼 수 있다. 작자는 의식적으로 민간에서 전해지는 소문을 흡수하였으며, 심지어 적당한 상상과 합리적 허구를 더함으로써 傳奇的 색채가 짙은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고사 속에도 일정한 소설 성분과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국어』 속의 관련 예문을 모두 인용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 「晉語一」의 「獻公卜伐驪戎勝而不吉(헌공의 여웅 정벌 집괘가 승리하되 불길하다고 나오다)」¹²⁾ 단락과 「史蘇論驪姬必亂晉(사소가 여희는 반드시 진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말하다)」¹³⁾ 단락에서 여희가 獻公을 충동질하여 여러 公子들을 지방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고 太史 蘇가 진나라가 난리에 휩싸일 것을 예언하며 大夫들에게 경계할 것을 말한 내용, 「優施教驪姬遠太子(우시가 여희에게 태자를 멀리 쫓아 보내도록 교사하다)」¹⁴⁾ 단락에서 우시와 여희가 태자 申生을 제거하기 위한 계책 수립에서 태자의 유약한 성격을 이용하려는 간사함과 악독함을 잘 드러낸 부분, 「優施教驪姬讒申生(우희가 여희를 교사하여 신생을 참소하게 하다)」¹⁵⁾ 단락에서 獻公의 失權을 근심하여

11) 譚家健, 『先秦散文藝術新探』,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5, 202쪽.

12) 『國語·卷七·晉語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252-253쪽.

13) 같은 책, 261-263쪽.

14) 같은 책, 268-270쪽.

15) 같은 책, 274-278쪽.

자신의 죽음을 자청하는 여희의 고단수 訟事에 의해 위협에 빠지는 태자 신생 이야기, 「晉語二」의 「驪姬譖殺太子申生(여희가 태자 신생을 참소하여 죽이다)」¹⁶⁾ 단락과 「公子重耳夷吾出奔(공자 중이와 이오가 망명하다)」¹⁷⁾ 단락에 이르기까지의 고사는 권위쟁탈을 둘러싸고 종종 음모와 살해 및 流亡, 전쟁과 외교 등의 극적인 줄거리를 전개하고 있다. 인물 간에는 갈등과 대립으로 뒤엉켜있고, 사건은 복잡하며, 줄거리가 곡절이 많고 감동적이어서 전기적 색채가 강하다. 그중에서 특히 史蘇, 驪姬, 優施, 里克, 申生, 重耳 등이 나오는 「晉語二」의 「驪姬譖殺太子申生」 단락과 「公子重耳夷吾出奔」 단락의 고사는 각각 당시의 정경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작가의 상상과 허구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국어』의 기사 중 어떤 단락에는 신화전설과 전기적 역사고사를 끼워 넣거나 괴이한 미신 내용이 들어있다. 「晉語八」의 「叔向母謂羊舌(氏)必滅(숙향의 어머니가 양설씨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말하다)」 고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숙어가 태어나자 그 어머니가 그를 살펴보고서 “이 아이는 범의 눈에 돼지의 주둥이를 하고 매의 어깨에 소의 배를 가졌으니, 계곡의 골짜기는 채울 수 있어도 이 아이의 욕심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뇌물과 관련된 일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돌보아 기르지 않았다. 양식이 태어나자 숙향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마루에 이르러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내 발길을 돌리며 “그 울음소리가 승냥이의 소리이니 마지막에 양설씨의 일가를 멸망시킬 자는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⁸⁾

16) 『國語·卷八·晉語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285-292쪽.

17) 같은 책, 293-295쪽.

18) 叔魚生, 其母視之曰: “是虎目而豕喙, 鳶肩而牛腹, 谿壑可盈, 是不可饜也, 必以賄死。” 遂不視。楊食我生, 叔向之母聞之, 往, 及堂, 聞其號也, 乃還, 曰: “其聲, 豺狼之聲, 終滅羊舌氏之宗者, 必是子也。” (『國語·卷十四·晉語八』,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453쪽.)

叔向의 모친은 건식이 있고 智謀를 갖춘 귀족부녀이다. 그래서 漢代 劉向의 『列女傳』에는 그녀를 「仁智」類에 넣었고, 『左傳·昭公二十八年』에도 그녀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모두 그녀가 관상술(相人之術)으로써 길흉을 예측하였으며 나중에 應驗하였다는 내용이다. 운명이나 관상과 관련된 이들 고사가 선양하는 것은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도와주고, 나쁜 사람은 흉악한 일을 당한다(吉人天相, 惡人凶相)’라는 완전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운명론이다. 『국어』의 기사 중 괴이한 미신 내용이 들어있는 이러한 고사를 후대의 완전한 志怪小説로 간주할 수 없지만, 지괴소설 맹아기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周語下」의 「太子晉諫靈王壅穀水(태자 진이 영왕에게 곡수 막는 일을 간언하다)」 고사를 예로 들면, 여기에서 共工氏, 崇伯鯀, 堯, 禹 등 적지 않은 고인의 전설을 인용하고 있다.

“……옛날 공공이 이(자연에 순응해야하는) 도리를 버리고 안락함에 빠져 지나치게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하천을 막고 산을 무너뜨리며 웅덩이를 메워 천하를 해롭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복을 내려주지 않고 못 백성이 돕지 않으며, 천재와 병란이 일제히 일어나 공공이 멸망하였습니다. 유우씨(순임금) 때에는 숭백곤(우임금의 아버지)이 있었는데, 음란한 마음을 마구 행하여 공공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자 요임금이 우산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뒤에 백우(하우)가 과거의 잘못된 법도를 감안하고 법제를 수정해 고쳐서 천지의 물상을 본뜨고 여러 사물의 법칙을 비교하여 본받아 백성의 준칙이 되게 하여 모든 만물이 상해를 입지 않고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공공의 종손 사악이 그를 보좌하여 높은 산을 높아지게 하고 낮은 못은 독을 쌓으며 하천을 소통시키고 막힌 곳에 물길을 터주며 물을 모이게 하여 만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며, 구주의 산을 다스려 높아지게 하고 구주의 하천을 터서 소통시키며 구주의 못을 막아 제방을 쌓고 구주의 호수에 생물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며 구주의 토지를 평탄하게 넓히고 구주의 안에서 집을 짓고 편안히 살게 하여 온 천하가 하나로 합하여 통하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늘에는 잠복한 음기가 없고 땅에는 발산하는 양기가 없으며, 흐르는 물은 침체된 더러운 기운이 없고 활활 타는 불은 이글거리는 불꽃이 없으며, 신은 사악한 행위가 없고 백성은 본분에 벗어나는 지나친 마음이 없으며, 사시는 기후가 뒤바뀌는 현상이 없고 작물은 생장을 해치는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니다. (사악이) 우와의 공적을 따라 본받고 자연의 법도와 규율을 헤아려 행하니 훌륭한 공적을 거두지 않은 일이 없어 상제의 마음을 흠족하게 하였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적을 가상하게 여겨 복으로 천하를 주면서 '사'라는 성을 내리고 '유하'라는 씨를 주었으니, 이는 그가 아름다운 복으로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만물을 생육시킨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사악에게 복으로 나라를 주어 제후의 수장인 후백으로 임명하면서 '강'이라는 성과 '유여'라는 씨를 주었으니, 이는 그가 우의 수족과 심복이 되어 만물을 잘 성장하게 하고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한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¹⁹⁾

周靈王 때, 주나라의 東都 王城에서 곡수와 낙수가 물길을 다투고 왕궁을 습격하자 영왕이 곡수를 막으려고 하였다. 태자 진이 이를 결연 반대하여 이 간언으로 자신의 議論을 나타내었다. 그는 고대 聖王이 천하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천지의 본성에 순응하여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財用이 있게 하고 죽어서는 귀의할 곳이 있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아울러 역사상의 공공씨, 송백곤, 요, 우 등 여러 고인의 전설을 대거 인용하여, 영왕이 공공씨와 송백곤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기를 권계하였다. 기사 속에 섞어 넣은 이러한 역사전설로 인하여 후대 학자들은 줄곧 『국어』를 『좌전』과 그 성질이 다른 사서로 평가하였다. 『국어』 기사의 제재 선택이 신중하거나 엄밀하지 않고 전설과 괴이한 미신 고사 및 인물 일화 등의 내용과 많이 관련됨으로써, 韋昭는 「國語解敘」에서 “『국어』의 문장이 경전(『춘추경』)에 충실한 것이 아니므로 ‘春秋外傳’이라고 부른다.(其文不主於經, 故號曰‘外傳’.)”고 하

19) “……昔共工棄此道也, 虞于湛樂, 淫失其身, 欲壅防百川, 墮高堙庫, 以害天下。皇天弗福, 庶民弗助, 禍亂並興, 共工用滅。其在有虞, 有崇伯鯀, 播其淫心, 稱遂共工之過, 堯用殛之于羽山。其後伯禹念前之非度, 釐改制量, 象物天地, 比類百則, 儀之于民, 而度之于羣生。共之從孫四嶽佐之, 高高下下, 疏川導滯, 鍾水豐物, 封崇九山, 決汨九川, 陂鄆九澤, 豐殖九藪, 汨越九原, 宅居九隩, 合通四海。故天無伏陰, 地無散陽, 水無沈氣, 火無災燁, 神無間行, 民無淫心, 時無逆數, 物無害生。帥象禹之功, 度之于軌儀, 莫非嘉績, 克厭帝心。皇天嘉之, 祚以天下, 賜姓曰‘姁’、氏曰‘有夏’, 謂其能以嘉祉殷富生物也。祚四嶽國, 命以侯伯, 賜姓曰‘姜’、氏曰‘有呂’, 謂其能爲禹股肱心膂, 以養物豐民人也。……” (『國語·卷三·周語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103-104쪽.)

었다. 唐代 柳宗元은 경서를 숭상하고 사서를 존송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국어』가 “그 문장은 뛰어나지만 언어가 난잡하고 괴이한 것을 좋아하여 윤리에 반하는 것을 책망한다.(病其文勝而言尫, 好詭以反倫.)”²⁰⁾고 평가하였다. 또 “문채를 풍부하게 하는 것만 강구하고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과장되고 괴상한 내용으로써 그것을 증익하고 공허하고 황당한 내용으로써 그것을 확장한다.(務富文采, 不顧事實, 而益之以誣怪, 張之以闕誕.)”²¹⁾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과장되고 괴상한 내용(誣怪)’과 ‘공허하고 황당한 내용(闕誕)’은 『국어』의 예술적 상상과 허구를 크게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설 성분과 요소를 함유하게 함으로써 후세 소설가의 소설 창작을 위한 부분적 예술경험을 쌓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誇張 手法을 운용한 重大場面の 描寫

『국어』의 일부 단락은 그 서사의 처음과 끝이 완전할 뿐 아니라 역사인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비교적 세밀한 묘사를 함으로써 이야기줄거리의 완성성과 인물형상의 생동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작자는 과장 수법을 운용하여 성대한 장면과 과장된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눈길을 끌 정도의 생동감이 넘치는 뛰어난 문장을 선보였다. 「吳語」에서 魯哀公 13년 ‘黃池之會’ 전후의 史實을 기술한 「吳欲與晉戰得爲盟主(오나라가 진나라와 싸우려고 하여 맹주가 되다)」의 단락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오왕 부차가 황혼 무렵에 지시를 내려 말에게 곡식을 먹이며 군사들을 배불리 먹게 하였다. 밤중이 되자 명령을 내려 병기를 잡고 갑옷을 입으며 말의 헛바닥을 붙들어 매고 화덕의 불을 밖으로 꺼내어 진중을 환하

20) 柳宗元, 「與呂道州溫論非『國語』書」, 『柳河東全集』卷三十一, 北京: 中國書店, 1991, 337쪽.

21) 같은 책, 338쪽.

게 비추게 하고 군사 100명을 똑같이 1행으로 편성하여 100행을 만들었다. 1행마다 우두머리는 모두 관군으로서 방울을 품에 안고 군사 명부를 손에 잡으며 좁고 긴 깃발을 세우고 무늬 있는 코뿔소의 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받쳐 들었다. 10행은 한 사람의 嬖大夫가 통솔하여 새의 깃을 쪼개어 장식한 깃발(旒)을 세우고 북을 손에 들며 병서를 끼고 북채를 잡았다. 또 10旒는 한 사람의 장군이 통솔하여 해와 달을 그린 常旗를 쫓고 戰鼓를 북트에 매달아 세우며 병서를 끼고 북채를 잡게 하였다. 1만 명으로 方陣을 만들어 모두 흰색 하의를 입고 흰 기를 세우며 흰 갑옷을 입고 흰 새 깃으로 살깃을 단 화살을 등에 메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흰 띠 풀꽃과 같았다. 오왕이 직접 도끼를 잡고 곰과 호랑이를 그린 흰 기를 쫓고 방진의 중앙에 우뚝 서있었다. 좌군도 중군과 똑같이 하여 모두 붉은 새 깃으로 살깃을 단 화살을 등에 메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우군도 중군과 똑같이 하여 모두 검은 하의를 입고 검은 기를 세우며 검은 갑옷을 입고 검은 새 깃으로 살깃을 단 화살을 등에 메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먹물과 같았다. 갑옷을 입은 무장한 군인 3만 명을 결성해 강력한 공격태세를 갖추게 하여 첫답이 올 때가 되어야 陣勢를 확정하였다. 군진의 배치를 끝내자 진나라 군대와 의 거리는 1리 정도였다. 으스름 날이 썰 무렵 오왕이 북채를 잡고 직접 나와 종과 진고를 치고 丁寧(징/鉦)을 두드리고 鐃于(군중 악기)를 울리며 방울을 흔드니 웅감한 자와 겁쟁이를 막론하고 전군이 일제히 호응하여 삼군이 모두 환호하자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²²⁾

이 단락은 吳王 夫差가 大夫 王孫雒(公孫維)의 계락을 듣고 따라서 戰陣을 펴고 강대한 聲勢로써 晉나라를 위협하며, 또 천자가 제후에게 명령하는 술책을 사용하여 진나라가 지배에 복종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단락의 서사에서 작자는 筆墨을 아끼지 않고 극력으로 과장된

22) 吳王昏乃戒，令秣馬食士。夜中，乃令服兵擐甲，係馬舌，出火竈，陳士卒百人，以爲徹行百行。行頭皆官師，擁鐸拱稽，建肥胡，奉文犀之渠。十行一嬖大夫，建旒提鼓，挾經秉枹。十旒一將軍，載常建鼓，挾經秉枹。萬人以爲方陣，皆白裳、白旒、素甲、白羽之矰，望之如荼。王親秉鉞，載白旗以中陳而立。左軍亦如之，皆赤裳、赤旒、丹甲、朱羽之矰，望之如火。右軍亦如之，皆玄裳、玄旗、黑甲、烏羽之矰，望之如墨。爲帶甲三萬，以勢攻，鷄鳴乃定。旣陳，去晉軍一里。昧明，王乃秉枹，親就鳴鐘鼓、丁寧、鐃于、振鐸，勇怯盡應，三軍皆譁鉦以振旅，其聲動天地。……(『國語』卷十九·吳語，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608쪽.)

분위를 조성하였으며, 언어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중복된 가운데 변화가 보이며 전쟁장면의 다채로운 경관을 매우 빼어나게 묘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남김이 없이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생동감이 흘러넘치며,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이 있어 마치 후세 장편역사소설의 서사필법과 흡사해 보인다.

또 「吳語」에 나오는 「吳越笠澤之戰(오나라와 월나라의 입택 전쟁)」의 기록은 전쟁장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여 現場感이 풍부하다.

이때 오왕 부차가 군대를 출동하여 松江의 북쪽 언덕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월왕 구천은 송강의 남쪽 언덕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월왕이 곧 군대를 둘로 나누어 좌군과 우군을 만들고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한 친병 6천 명을 편성하여 중군을 만들었다. 이튿날 송강에서 水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날 석양 무렵이 되자 좌군에게 명령하여 모든 군사는 하무(행진할 때에 군사의 입에 떠들지 못하도록 물리던 일)를 물고 송강을 5리쯤 거슬러 올라가서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고, 또 우군에게 명령하여 모든 군사는 하무를 물고 송강을 5리쯤 지나가서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밤중이 되자 좌군과 우군에게 명령하여 북을 치면서 송강을 건너 중류에서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오나라 군대는 북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 “월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둘로 나누어 우리 군대를 협공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나라 역시 군대를 둘로 나누어 월나라 군대를 막으려고 준비하였다. 월왕 구천이 즉시(죽음을 각오한) 중군에게 명령하여 하무를 물고 송강을 몰래 건너서 북도 치지 않고 떠들지도 않으면서 기습공격하게 하니 오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였다. 월나라의 좌군과 우군이 즉시 송강을 건너 추격하여 沒에서 또 크게 패배시키고 교외에서 또 패배시켜서(오나라 군대를) 세 번 싸워 세 번 패배시키자 오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월나라 군대는 마침내 오나라의 국도에 진입하여 왕위를 포위하였다.²³⁾

23) 於是吳王起師，軍於江北，越王軍於江南。越王乃中分其師以爲左右軍，以其私卒君子六千人爲中軍。明日將舟戰於江，及昏，乃令左軍銜枚派江五里以須，亦令右軍銜枚踰江五里以須。夜中，乃命左軍、右軍涉江鳴鼓中水以須。吳師聞之，大駭，曰：“越人分爲二師，將以來攻我師。”乃不待旦，亦中分其師，將以禦越。越王乃令其中軍銜枚潛涉，不鼓不譟以襲攻之，吳師大北。越之左軍、右軍乃遂涉而從之，又大敗之於沒，又郊敗之，三戰三北，乃至於吳。越師遂入吳國，圍王臺。(『國語·卷十九·吳語』，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626쪽.)

이 단락은 吳越 양국의 군대가 分合, 隱現, 攻守, 進退하는 장면과, 지휘하는 장수의 군대 배치와 파견 및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결책 등 ‘笠澤之戰’의 상세한 경과를 집중적으로 묘사하였다. 문장만 보아도 당시의 상황들이 눈에 선할 정도로 매우 생동감이 있어 마치 실제 전쟁장면을 보는 것 같다. 작자는 구체적인 장면 묘사를 통하여 생동적이고 형상적으로 전쟁에 관한 일의 전모를 기록하였다. 『국어』에 나타난 이러한 전쟁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는 후세 『三國演義』와 같은 장편역사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서사문학적 특징을 띠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3) 歷史人物들의 言行을 통한 性格의 表現

『국어』가 ‘記言’ 위주로 서사를 전개하지만, 작자는 역사인물들의 언행을 통하여 각각의 인물묘사에도 특별히 주의하였다. 인물을 묘사함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당시 각양각색의 역사인물의 풍모를 잘 나타내었다. 그 언어는 전반적으로 정제되어 간결하며, 묘사는 생동적이고 형상적이다. 『晉語』에 나오는 重耳, 驪姬, 子犯, 『吳語』에 나오는 夫差, 『越語』에 나오는 句踐 등은 모두 분명한 성격특징을 지닌 인물들로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형상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 晉文公 重耳는 『국어』에서 필목을 비교적 많이 사용한 중요인물 중의 하나이다. 작자는 『晉語四』(총 25장)에서 끊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되는 일련의 고사를 통하여 重耳를 갈등과 투쟁 속에 배치하여 그 성격특징과 성장과정을 잘 드러내었고, 뚜렷한 개성을 지닌 인물형상을 뛰어난 묘사하였다. 특히 『晉語四』의 「齊姜與子犯謀遣重耳(제강이 자범과 중이를 보낼 일을 모의하다)」 단락에서 묘사한 인물의 형상과 그 정신적 면모는 개성화된 언어를 통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姜氏가 子犯과 모의하여 重耳를 취하게 하고서 신고 가게 하였다. 중이가 술에서 깨어 창을 들고 자범을 쫓아가며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외삼촌의 살을 씹어 먹어야 만족할 줄 알 것입니다.”라고 하니, 외삼촌 자범(孤偃)이 달아나면서 또 대답하여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죽은 곳을 알지 못하니 누가 승냥이나 이리와 함께 다투어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공하게 되면 공자께서 또한 진나라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식을 달게 먹을 것인데, 나 偃의 살은 비리고 누린내가 나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라고 하고는 마침내 떠났다. 24)

작자는 위의 단락에서 重耳라는 이 중심인물을 둘러싸고 그의 처인 姜氏, 외숙인 子犯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이들에 대한 필목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 묘사가 매우 생생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吳王 夫差도 『국어』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묘사한 인물형상 중의 하나이다. 작자는 「吳語」의 「吳王夫差與越荒成不盟(오왕 부차가 월나라와 말로만 맹약을 하고 맹약 의식을 거행하지 않다)」²⁵⁾ 단락에서 강화를 요청하는 越王 句踐의 속마음을 꿰뚫어본 伍子胥의 간언을 듣지 않고 스스로 墓穴을 판 오왕 부차의 자만심을 기록한 고사를 통하여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가 끝내 쇠퇴하여 멸망을 자초한 부차의 성격특징도 잘 묘사하였다. 작자는 또 이와는 상대적으로 「申胥自殺(오자서가 자살하다)」²⁶⁾ 단락에서 諍臣 申胥(伍子胥)가 교만한 오왕 부차에게 죽음으로써 간언하는 언행을 통하여 그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두 인물을 서로 照映하여 그 성격특징을 부각시켜 부차의 인물형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越語上」에서 「越王句踐滅吳(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다)」²⁷⁾의 역사 사실을 묘사한 단락도 문학성이 매우 뛰어나다. 전체이야기의 줄거리가 비교적 완전하며, 인물묘사도 생동적이고 형상적이어서 『국어』의 서사 중에서

24) 姜與子犯謀，醉而載之以行。醒，以戈逐子犯，曰：“若無所濟，吾食舅氏之內，其知鑿乎！”舅犯走，且對曰：“若無所濟，余未知死所，誰能與豺狼爭食？若克有成，公子無亦晉之柔嘉，是以甘食。偃之肉腥臊，將焉用之？”遂行。(『國語·卷十·晉語四』，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344-345쪽.)

25) 『國語·卷十九·吳語』，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595-596쪽.

26) 『國語·卷十九·吳語』，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601-602쪽.

27) 『國語·卷二十·越語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631-634쪽.

소설 성분과 요소가 가장 풍부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작자는 「越語上」과 「越語下」에서 臥薪嘗膽하면서까지 분발하여 강성함을 도모하고, 치욕을 씻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증임을 맡아 고난을 두루 다 겪는 句踐의 형상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묘사하였다. 작자는 또 월나라의 臣民이 大敵 앞에서 거국적으로 일치하여 한마음으로 공동의 적을 미워하는 애국정신을 표출하는 데에도 필묵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멀리 내다보는 탁월한 식견과 정치적 재능을 가진 謀臣 范蠡와 충직하고 온후하며 꾸밈없이 솔직한 大夫 文種에 대해서도 개성이 두드러진 인물형상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고 逼真하게 묘사하였다.

또 「越語下」의 「范蠡諫句踐勿許吳成卒滅吳(범려가 구천에게 오나라와 화친을 허락하지 말라고 간언하여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다)」²⁸⁾ 단락에서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를 격파한 뒤 오왕 부차의 간절한 화친 요청에 마음이 흔들려 허락하려고 하자, 범려가 이를 결연히 반대하여 끝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사적을 기술하였다. 『국어』의 이 문장은 내용상 「吳語」와 「越語上」의 기록과 중복되는 곳이 있다. 묘사한 것은 동일한 전쟁이지만, 서사의 시각이 다르고 중점도 다르다. 「吳語」는 오나라 역사의 시각에서 夫差가 黃池에서 回兵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서 망국으로 인한 자살까지 묘사하였다. 그렇지만 작자는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반면에 「越語」는 월나라 역사의 시각에서 쓴 것이다. 「越語上」은 단지 월왕 구천이 분발하여 강성을 도모하고 백성에게 의지해 치욕을 씻고 복수하여 끝내 오나라를 멸망시킨 내용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 또 「越語下」는 월나라 謀臣 范蠡가 월왕 구천을 보좌하여 오나라를 멸망시킨 내용을 썼다. 「越語下」의 문장구조와 서사 줄거리는 「越語上」보다 더 완전하다. 이에 대하여 清代 金聖歎은 “전편의 문장은 모두 범려를 썼는데, 그가 안목과 식견이 매섭고 마음이 잔혹하며 말이 엄혹하고 수단이 냉혹한 것은 곧 그가 때를 잘 기다렸다가 염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通篇皆寫范

28) 『國語』·卷二十一·越語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655-658쪽.

蠡, 其眼辣、心辣、口辣、手辣處, 卽其所以候時轉物者也.”²⁹⁾고 비평하였다. 『국어』의 작자는 范蠡라는 이 謀臣의 형상을 돋보이게 하려고 전편에 걸쳐서 그를 묘사했는데, 관련인물들을 모두 그를 보조하는 배역의 위치로 물러나게 했으며 주인공 句踐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越語上」에서 쓴 「越王句踐滅吳」의 서사와 서로 비교하면, 줄거리의 선택과 배치, 서술의 입장과 시각은 모두 상응하는 조정을 하여 서로 크게 다르다.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하고 인물을 형상화하는 것을 주지로 하는 이러한 서술 방식은 「越語下」의 서사를 『국어』 중에서 소설 성향이 가장 돋보이는 역사고사의 壓卷이 되게 하였다.

이밖에도 『국어』의 어떤 단락은 역사인물의 언행을 통하여 인물의 정신적 면모와 성격특징을 드러내는데 매우 능하다. 여기에는 서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완전하여 이야기줄거리의 시작과 끝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 인물성격에 대해서도 비교적 세밀한 묘사를 함으로써 이야기줄거리와 인물형상의 생동감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면 「晉語一」에서 「優施教驪姬譜申生(우시가 여희를 교사하여 태자 신생을 참소하게 하다)」의 역사 사실을 기록한 단락은 단독으로 하나의 단편 역사고사로 볼 수 있다. 또 「晉語二」의 「驪姬譜殺太子申生(여희가 태자 신생을 참소하여 죽이다)」 기사는 앞에 나오는 「優施教驪姬譜申生」의 기사를 이어서 세밀하고 깊이 있는 묘사를 빼어나게 운용하였다. 작자는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한 驪姬의 웃는 모습과 목소리를 추측하여 摹寫해내었고, 측면에서 優施의 악랄하고 음험한 인물형상을 잘 드러내었다. 작자는 驪姬와 優施 이 두 인물의 개성을 묘사하는 동시에 또한 감히 정의를 견지하지 못하고 중립을 선언한 里克을 조합하여, 그의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明哲保身하며 교활하고 優柔不斷한 성격특징을 잘 묘사하였다.

여희가 우시에게 고하여 “이미 임금께서 나에게 태자를 죽이고 해체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극이 어렵게 생각되니 이를 어찌지!”라고 말하니, 우시가 “내가 이극을 우리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29) 金聖歎, 『才子必讀古文』 卷三. 張國光點校, 『金聖歎批才子古文』,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6, 110쪽.

것은 하루면 됩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 양 한 마리로 연향을 준비해 주신다면 내가 그 집으로 찾아가 술을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광대라서 아무 말도 실수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여희가 허락하고서 이내 음식을 장만하여 우시로 하여금 이극에게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술이 반쯤 취하였을 때 우시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면서 이극의 처에게 일러 “주맹(이극의 처)은 나에게 한 잔 마시도록 권해주십시오. 내가 이극에게 한가롭고 즐겁게 임금을 섬기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이내 “한가하고 즐거운 길을 머뭇거리며 다가서지 못하니 까마귀만도 못하다. 사람들은 울창한 숲에 모여 드는데 자기는 홀로 마른나무가지에 앉아있었다.”라고 노래를 부르자, 이극이 웃으며 “무엇을 울창한 숲이라고 말하며, 무엇을 마른나무가지라고 말하느냐?”고 하자, 우시가 “그 어머니는 부인이 되었고 그 아들은 임금이 될 것이니 울창한 숲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은 또 비방을 받고 있으니 마른나무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라서 시들어졌으니 곧 베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우시가 술자리를 끝내고 나가자 이극이 차려진 음식들을 밀쳐두고 저녁 밥도 먹지 않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밤중에 우시를 불러 “아까 너희들 말은 희롱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들은 바가 있어서이냐?”라고 하니, (우시가) “들었습니다. 임금께서 이미 여희에게 태자를 죽이고 해제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셔서 계책이 이미 정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극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태자를 죽이는 일을 나로선 차마 할 수 없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태자에게 통하여 알리는 일도 내가 감히 할 수 없다. 중립을 지키면 내가 화를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 우시가 “면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³⁰⁾

『국어』의 작자는 이 단락에서 리크의 심리상태와 활동을 매우 세밀하고 생

30) 驪姬告優施曰：“君既許我殺太子而立奚齊矣，吾難里克，奈何！”優施曰：“吾來里克，一日而已。子爲我具特羊之饗，吾以從之飲酒。我優也，言無郵。”驪姬許諾，乃具，使優施飲里克酒。中飲，優施起舞，謂里克妻曰：“主孟昭我，我教茲暇豫事君。”乃歌曰：“暇豫之吾吾，不如鳥烏。人皆集於苑，已獨集於枯。”里克笑曰：“何謂苑？何謂枯？”優施曰：“其母爲夫人，其子爲君，可不謂苑乎？其母既死，其子又有謗，可不謂枯乎？枯且有傷。”優施出，里克辟奠，不殮而寢。夜半，召優施，曰：“曩而言戲乎？抑有所聞之乎？”曰：“然。君既許驪姬殺太子而立奚齊，謀既成矣。”里克曰：“吾秉君以殺太子，吾不忍。通復故交，吾不敢。中立其免乎？”優施曰：“免。”（『國語』卷八·晉語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286-287쪽.)

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優施가 대부 이극에게 태자 申生을 돕지 못하도록 하고, 이극의 성격이 우유부단하여 생각을 결정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광대의 신분으로 宴饗에서 춤을 추고 「暇豫之歌」를 노래함으로써 이극이 신생의 편에 서서 자기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극은 우시의 말을 듣고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거듭 고민하였으나 여전히 벗어날 수 없어 한밤중에 또 우시를 불러 진상을 세세히 묻는다. 진상을 알게 된 이극은 내심 갈등이 심하여 驪姬가 양심이 불안하고 용기가 부족한 것을 지지하면서도 여희가 또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두려움에 불안하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이극의 심리상태를 작자는 완전히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표현해내었다. 이러한 심리분석을 포함한 인물묘사는 선진 시기의 다른 사전저작에서 의외로 찾아보기 드물다. 여희와 신생, 이 두 인물의 묘사도 『좌전』 속의 기록은 『국어』처럼 그렇게 생동적이고 형상적이지 않다. 이 단락에서 형상화한 다양한 인물의 개성 특징은 모두 세심하게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면묘사와 장면전환을 통하여 한 편의 뛰어난 완결하며 전기적 색채가 풍부한 단편 역사고사를 구성하였다. 문장 속에서 閨房의 속삭이는 말과 密室의 음모 위주로 한 줄거리는 상상과 허구의 성분을 다분히 함유하고 있어 전설고사에서 취하지 않았으면 史官의 손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가 바로 이런 합리적 상상과 허구를 적절히 운용하였기 때문에 이야기줄거리와 인물형상의 생동감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 속에 함유한 소설 성분과 요소를 더욱 풍부하게 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사문학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

3. 結語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총결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는 기언 위주로 되어 있어 기사가 간략하고 논리가 대체로平易하다. 그러나 문학적 시각에서

보면 일부 단락의 문장은 그 서사의 처음과 끝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으며, 역사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상상과 허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과장 수법을 운용하여 중대 역사장면을 묘사하였고, 역사인물의 언행을 통하여 그 성격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이로써 이야기줄거리의 안정성과 인물형상의 생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역사문헌으로서의 사학적 가치를 뛰어넘어 서사문학적인 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 이러한 단락의 문장은 단독으로 하나의 단편 문학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속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소설 성분과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후세 소설 문체의 형성과 발전에도 부분적 서사 경험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본다.

중국 고대에 소설이 비교적 엄격한 문체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明, 淸代 이후부터이다. 일반적으로 역사문헌의 기록에서 줄거리가 세밀하고 생동적일수록 사료적 가치는 크지 않고 그 기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특히 野史傳說의 성질을 띤 기록은 더욱 實錄일리가 없다. 이로써 추측컨대, 선진 시기에 나온 사전저작의 작자들이 의거한 자료는 주로 史官의 기록에서 나왔지만 적지 않은 내용은 원래 당시 사회에서 각종 방식으로 유전되어온 역사고사이다. 그 속에는 이미 약간의 허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저작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 작자는 또 스스로의 역사에 대한 상상과 추측에 근거하여 적지 않은 내용을 가필하기도 한다. 당연히 이러한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허구는 소설의 허구와 같지 않다. 그것은 완전히 역사에 의거하여 역사를 더 잘 기록하기 위한 것이며, 작자의 역사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고사의 재미를 추구하여 작자 자신과 독자의 기이한 사물을 찾는 심리를 만족시키는 잠재의식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³¹⁾ 고사의 재미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식에서 출발하여 서사 속에 부분적으로 첨가한 예술적 가공은 바로 사전저작 속에서 소설적 요소와 특성으로 드러난다.³²⁾

史傳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엄격히 말하면 일반 문학이나 소설작품과는 다

31) 章培恒 駱玉明 主編, 『中國文學史』(上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年, 111-112쪽.

32) 拙稿, 「小説 觀點에서 본 『左傳』 敘事의 文體 屬性」, 『中國語文論叢』69, 2015, 180쪽.

른 역사저작이다. 그것이 작자에 의해 어떻게 허구를 가미하고 애써 상상을 헤아리든 간에 결국은 역사 사실을 위배할 수 없다는 전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후대의 소설가들이 소설작품 속에서 인물의 형상과 허구의 경지를 만들 때, 역사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규범으로 삼지 않는 것과는 그 의도가 확연히 다르다. 선진 시기의 대표적 사전저작인 『국어』 속에 비록 소설에 근접하거나 소설과 유사한 문장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사나 야사의 내용을 소설 작품에 포함시킬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두를 지금까지 나온 ‘중국문학사’나 ‘중국산문사’에서처럼 전통 역사산문(사전산문)의 범주 속에만 묶어놓고 담론할 수는 없다. 『국어』의 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문장들이 의도적으로 창작한 소설작품은 아니지만, 그것이 근현대적 의미에서의 소설적 제요소와 특징을 갖추고서 오랜 세월동안 부단히 발전 성숙되고 융합 누적되어져 후세 소설의 초보적인 단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준비한 것은 결코 홀시될 수 없다.³³⁾ 특히 선진 시기의 사전저작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서사기교와 예술표현수법을 지닌 『국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선 그 본래의 역사문헌 가치를 충분히 중시해야겠지만, 소설의 관점에서 본 그 서사 특징과 문학적 가치가 중국문학사에서 갖는 지위와 후세 문학, 특히 소설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33) 같은 논문, 185쪽.

參考文獻

- 李紀勳, 「春秋시기 歷史散文의 文章技術 小考-『國語』를 중심으로」, 『中國散文研究集刊』5輯, 韓國中國散文學會, 2015.
- 拙稿, 「小說 觀點에서 본 『左傳』 敘事의 文體 屬性」, 『中國語文論叢』69輯, 中國語文研究會, 2015.
- 신지영 이정재 옮김, 『국어』, 서울: 홍익출판사, 1998.
- 班固撰, 『漢書』(二十四史校點本), 北京: 中華書局, 1956.
- 董增齡撰, 『國語正義』, 成都: 巴蜀書社, 1985.
- 杜預集解, 『春秋經傳集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傅修延, 『先秦敘事研究——關於中國敘事傳統的形成』, 北京: 東方出版社, 1999.
- 顧頡剛講授, 劉起鈞筆記, 『春秋三傳及國語之綜合研究』, 香港: 中華書局, 1988.
- 郭丹, 『史傳文學』,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
- 郭丹, 『先秦兩漢史傳文學史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4.
- 韓兆琦主編, 『中國傳記文學史』,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2.
- 胡念貽, 『中國古代文學論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黃永堂譯注, 『國語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 李佳, 『「國語」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 劉向集錄, 『戰國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柳宗元撰, 『柳河東全集』, 北京: 中國書店, 1991.
- 錢鍾書, 『管錘編』(第一冊), 北京: 中華書局, 1986.
- 屈萬里, 『先秦文史資料考辨』(屈萬里全集4),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3.
- 石昌渝, 『中國小說源流論』, 北京: 三聯書店, 1994.
- 司馬遷撰, 『史記』(二十四史校點本), 北京: 中華書局, 1956.
- 譚家健, 『先秦散文藝術新探』,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5.
- 譚家健, 『中國古代散文史稿』, 重慶: 重慶出版社, 2006.
- 王靖宇, 『中國早期敘事文論集』, 臺北: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籌備處, 1999.
- 王靖宇, 『中國早期敘事文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韋昭注,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校點, 『國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吳宏一編著, 『史傳散文』(先秦文學導讀2), 臺北: 桂冠圖書公司, 1988.
- 吳志達, 『中國文言小說史』, 濟南: 齊魯書社, 1994.
- 徐元誥撰, 『國語集解』, 北京: 中華書局, 2002.
- 楊伯峻編著,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0.
- 張國光點校, 『金聖歎批才子古文』,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6.
- 章培恒 駱玉明主編, 『中國文學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Abstract

On the Narrative Literature Value of *Guoyu* from a Viewpoint of Novel

Je, Hae-sung

Guoyu(國語) is different from *Zuozhuan*(左傳) in that it is not a systematic chronological history, but is the China's first part of records of some important historical event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book consists of 21 volumes, which respectively recorded Zhou, Lu, Qi, Jin, Zheng, Chu, Wu and Yue in the eight fragments of history and each fragment of is not affiliated. As *Guoyu* mainly recorded the language, chronicle is simple and reasoning is plain. But from the literary perspective, the narrative of some chapters are complete in the head and the tail and contains not only reasonable imagination composition and the aphorisms rich in vivid figures of speech and implications, but also more detailed characterizations of the character. Thus it greatly raised the integrity of the plot and the vividness of characters and improved the value of *Guoyu* as the narrative literature. These chapters can be a literary short story, which has a certain composition and factors. As an important part of the history of the pre-Qin Dynasty, the elements of these novels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by the scholars of the later generations. This thesis is about to discuss thes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narrative literature value of *Guoyu* from a viewpoint of novel.

Key words : *Guoyu*(國語), Fiction, Imagination, a Viewpoint of Novel, Narrative Literature

투 고 일 : 2016. 5. 10. / 심 사 일 : 2016. 5. 15.~ 2016. 6. 15. / 게재확정일 : 2016. 6. 16.